

# 사 설

## 관광특구 포교전략

정부가 13개도 17곳을 '관광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화엄사·천은사 등 천년고찰이 위치해 있는 전라남도를 비롯 유명사찰이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찰을 중심으로 '관광특구'를 개발한다.

사찰 중심의 관광산업 증진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사찰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유대강화를 통해 포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찰이 관광지와 밀접하게 사찰환경이 파괴되어 불교문화유산과 수행공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의 개발정책으로 지금까지 사찰환경분쟁이 제기되어 갈등을 겪고있는 사찰이 50여곳이 넘고 있다. 개발의 주체인 정부나 기업들이 불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않고 무작정 '개발호'를 띄우기 때문이다.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가 자리잡고 있는 가야산 위락시설계획, 금산사의 모악랜드건설, 통도사 일주포의 '통도관광타자'라는 대규모 놀이시설의 건설 등 사찰 수행공간의 훼손문제로 많은 갈등이 노출되어 왔다. '사찰환경과 민족문화 수호'는 불교계의 화두이다.

정부의 관광특구지정의 확대조치를 접한 우리 불교계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보다 치밀한 대책과 함께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겠다. 관광산업은 아름다운 우리의 금수강산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21세기 문명사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국가사업에 틀림없다. 선정문화에 바탕을 둔 심성산업(心性産業: mind industry)의 주요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조건 불교계가 '관광개발'을 반대할 수만은 없다. 국가발전과 불교포교의 활성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향으로 우선

불교계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관광특구개발 지역의 포교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전통사찰은 삼보장제이고 민족문화유산이므로 잘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위락시설·관광시설에도 포교당과 같은 전법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스포츠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문서포교자료의 비치와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된다. 이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참선지도나 선수련공간, 법당 마련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선정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한 친불교적인 수련시설(예를들면 기공, 선무술, 선무용, 요가 등)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관광특구지역 안의 사찰부동산이나 재산이 개발의 대상이 될 경우 불교계가 직접 개발과 경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불교사상에 바탕을 둔 공간배치나 경영방법이 실현될 수 있고 이른바 '생산불교'를 지향하는 길이다.

셋째, 관광개발에 앞서 사찰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보존장치가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 조계종이 얼마전에 '사찰환경보존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설치했으나,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계의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불교 환경전문가가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활동이 요망된다. 정부에 대해 각종 관계법령의 정비를 촉구하고 사찰 수행환경 수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이나 사찰환경의 수호는 재일차적 국가사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관광개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불교계가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 기조발제-불교는 생명복제 어떻게 볼 것인가

권기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인간의 과학기술 발달로 이제 생명을 복제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복제기술은 과학기술의 성과라는 찬사와 함께 그것이 가져올 역기능과 윤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역기능에 대한 관점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생태계를 혼란시키고 삶

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 둘째는 종교적 교의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윤리적 정서에 부당한 처사라는 견해다. 생명복제, 특히 인간복제에 대해서는 존엄성 훼손과 인간의 공산품화 등의 우려로 윤리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인간 공산품화 우려... 佛陀 생명관 밝혀야

불교 역시 생명복제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먼저 윤회의 이론이나 업식(業識) 등 불교의 교의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도전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불교의 교설은 본래 무아의 입장으로 생명도 본래 고유한 실체가 없는 오취(五取蘊)에 의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생명복제의 문제는 유·무명의 차이를 떠나 오취(五取蘊), 12연기설, 업보와 업식의 문제, 무아와 윤회, 생사의 문제 등 불타의 많은 교설들에 대한 종합적인 바른 해석과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 열린마당

## 불교문화연구 '생명복제' 세미나 요약

### 10년내 복제인간... 서구 법적규제

#### 생명복제 정의와 현황

박인국 (동국대 교수·응용생물학)



60여년전 독일의 발생학자 스페만이 '핵 속에 생명체 형성이 필요한 유전정보가 간직돼 있다'고 발표하고 이후, 개구리 도롱뇽 같은 양서류를 이용, 복제연구가 진행되었다. 1960년 최초로 개구리 복제에 성공한 이후 복제기술은 가축이나 어류 등의 품종개량에 널리 응용됐다. 윌머트박사가 양복제에 사용한 방법은 기존의 복제 방법과 다르다. 그는 종래의 수정란이 아닌 성숙한 동물의 체세포를 분리 배양해 반복되는 체세포분열을 통해 수많은 동일한 세포를 만들었다.

손상돼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배양된 많은 체세포를 이용할 때 때문에 수에 제한없이 많은 동물을 복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성숙한 체세포를 사용한 윌머트박사의 복제기술을 이용할 때 인간복제는 양의 경우처럼 세포주기의 각 단계에서 분열을 조화롭게 조절하면 가능하다.

미국의 코넬대학 퀴리교수는 앞으로 10년내 인간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덴마크, 독일 등 서구 여러 나라들은 인간 복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서두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인간복제' 실험지침을 마련, 인간복제를 해치는 실험을 규제하기로 했다. 일부 과학자들은 골수암 어린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특같은 어린이를 복제하는 것이 잘못이라며 항변하기도 하지만 애당초 원치 않았던 생명을 복제할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또다른 반론도 생각할 수 있다.

### 윤리적 대응책 세워 인류불행 막자

#### 유전공학과 인류의 미래

공중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미국에서 지난 3월에 열린 '인간복제 의회전문회'에서 톰 하킨(상원의원)은 "복제기술의 규제는 인류의 올바른 발전을 무분별하게 막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이안 윌머트(과학자)와 조지 안나스(생명윤리학자)는 "인간은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정환경과 경험 등 후천적 요소에 크게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의는 결국 생명공학을 둘러싼 인류의 견해를 반영하기도 하고 인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복제인간의 탄생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인류의 불행, 곧 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인류가 인간복제 연구를 진전시키는 데 아무런 제약을 두지않음으로써 생명공학을 무한히 확대시켜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예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설혹 그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과가 만들어주는 과보는 인류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인류의 파멸로까지 몰고갈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윤리학자나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그런 개인성 앞에서 인류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끝없이 반성하고 회회하며 견제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생명복제에 관한 윤리와 윤리적 판단, 연구상의 규제 등 여러 장치를 두기를 촉구한다.

### 인위적 생명조작 이익중생 배반

#### 불교윤리와 생명복제

정병조 (동국대 교수·국민윤리학)



생명복제를 향해 거론된 윤리문제는 대부분 생명창조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학적 도전이라는 기독교적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주장은 폐쇄적일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다. 불교는 현대산업혁명 속의 '멈춤 신호'이어야 한다. 과학문명뿐 아니라 물신(物神)주의, 즉물(即物)주의, 퇴폐적 허무주의 등을 멈추게 하는 완충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장은 보다 실천적으로, 육바라밀·육화경·십지 등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반야의 공관적 이해, 화엄의 육상원용을 윤리적 실천원리로 삼는다.

이 원리는 보살계 사상으로 동체대비의 근간이며 법계(法界) 즉 '다르마'(dharma)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실천덕목이다. 다르마의 원리를 가장 소박하게 표현하면 연기(緣起)이며 보다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육상(六相)의 논리로 변증된다. 육상이란 정체성·개별성·동질성·개성(個性)·완성·자기회생 등이다. 모든 사물 사이에 내재된 육상이 '조화'를 이루면 다르마가 구현된다.

생명복제는 근본적으로 인위적 조작이기 때문에 다르마를 파괴하는 것이며 이익중생(利益衆生)이라는 불교윤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한다. 불교윤리의 궁극적 목표는 중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써 부처의 삼으로 성숙시키는 질적 변환이다.

### 거부보다 생명관 발전계기 삼자

#### 불교의 생명관

이중표 (전남대 교수·철학)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명관은 영혼불멸을 믿는 종교적 생명관과 영혼은 물질의 소산이라는 과학적 생명관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영혼에 편향(偏向)된 생명관이란 결국 인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명관일 뿐이다. 생명의 기원과 영혼에 자유로운 불교적 생명관은 이 시점에서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다.

근본불교의 12연기설은 '유전론'과 '환멸론'을 통해 인간에게 육신이나 영혼은 실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무리가 만들어낸 허구적 망명임을 설명해 생사가 없는 생명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대승불교는 생명의 실상을 공(空)하다고 교설한다. 따라서 우리가 실유(實有)를 고집하는 집착에서 탈피해 공(空)의 공덕을 이룰 때 나와 남의 구별이 없는 동체대비를 이룰 수 있다.

'12연기설' '불성' '법신'의 생명관은 생명과 세계의 차별이 없다. 생명 속에 세계가 있고 세계 속에 생명이 있으며 하나의 생명 속에 만생(萬生命)이 들어 있다. 과학과 물질은 틀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생명의 존엄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물질과 생명, 자연과 인간을 동등한 가치로 바라볼 때 인간의 삶은 보다 숭고해질 수 있는 것이다. 생명복제 역시 생명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기 보다는 올바른 생명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진실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생명에 대한 인간의 이해에 잘못이 있었음을 깨닫는 일이다.

현대불교의 눈부신성

737-8881

## 현대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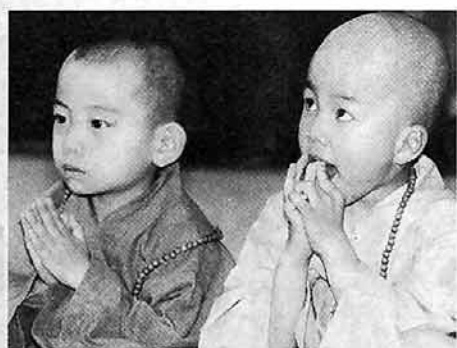


처음부터 다시하겠습니다

### 불교방송이 이룩한 불교계의 숙원사업

이 책의 탄생으로 불교의 역사는 해마다 새롭게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 불교계의 한해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 한국 불교 최초의 연감

불교뉴스연감은 한국불교 사상 최초로 제작된 연감단위 역사기록으로 불교사는 물론 사회·문화사로서 기능할 소중한 자료입니다.

- 역사적 소장 가치를 높여 구성했습니다.
-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컬러 화보 중심으로 제작했습니다.
- 범 종단의 다양한 활동상을 객관적 시각에서 기록했습니다.
- 96년 불교계의 모든 동향을 불교계 일지로 정리했습니다.
- 최고급 제작으로 품격을 높였습니다.



가까운 이웃에 역사의 기록을 전해주시고 이는 곧 佛法和 믿음의 덕을 쌓는 일입니다



BBS 불교방송

'97불교뉴스연감'은 각 종단을 초월한 시각에서, 기록의 가치를 지닌 다양한 종교활동 등 수록대상으로 하여 꾸며졌습니다. 모두 708쪽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연감은 각 종단의 포교활동, 일반신도들의 신앙생활, 사건 사고, 행사 등 96년 불교계를 특징짓는 500여 항목을 선정, 관련 사진과 개요를 한데 묶는 형식의 화보중심 편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 뒤 1년간 발행한 2천여 사건을 일지 형태로 정리함으로써 사료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밑책 부록으로 꾸민 '한국불교 인명록'은 현대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승가 재가의 불자 2천여 명의 이력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최대의 불교인명 사전으로 편찬했습니다.

#### 장간호 수록내용

- 96년 불교계 10대 뉴스/불교방송이 96년 말 선정한 10대 뉴스를 화보와 사진 개요 설명으로 꾸몄다.
- 되돌아본 96년 불교계/96년 불교계의 각종 사건을 종단동정·포교활동·종교정책·사찰환경·신도동향·문화예술활동 등으로 분류해 소개했다.
- 특집 - 사찰환경보존운동/사찰환경을 위협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위락시설 설치 계획 등에 대해 교계와 환경단체, 시민들이 공동 대응하며 사찰주변 환경을 위해 활동한 내용을 이슈별로 묶어 소개했다.
- 월별뉴스/96년 불교계의 각종 사건 사고 및 각종 행사활동 등 총 500여 항목을 월별로 분류해 원색 사진과 관련 기사로 수록했다. 월별 뉴스 중 96년의 불교계를 대표 할만한 큰 행사였던 5월의 부처님 오신날
- 부속행사, 7월의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 9월의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를 월별특집으로 구성하였다.
- 기획특집-불교계 국제교류/한중일 불교류 서울대회를 비롯해 96년 한해 동안 활발하게 진행했던 한국 불교의 국제교류활동을 담았다.
- 96년 불교계 일지 - 총 2천여건에 달하는 불교계 각종 사건과 활동의 전말과 의미를 자세히 기록, 96년 불교계를 일목일하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 불교역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 부록-불교인명록/불교계 승가 및 재가 인사 2천명을 선정해 그들의 출생지 및 학력, 경력, 현직, 저서, 수상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해 총 164페이지의 부록으로 제작

불교방송 연감기획팀 02)713-0101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값 150,000원